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한 정 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쳐온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 6월 25일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76권 406페이지)

미제가 조선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적준비를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역사적사실자료들로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발가놓으려고 한다.

미제가 조선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조선전쟁을 위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준비한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전쟁에 동원할 침략무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제는 우선 남조선에서 저들의 전쟁하수인으로 써먹을 피뢰군을 조작하고 그 통수권을 틀어쥐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직후인 1946년 1월에 벌써 피뢰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를 조작하고 1948년 9월에는 《국방군》으로 개편하였으며 그 병력을 점차 10만명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미국통치배들이 《북조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잘 무장된 10만명의 병력을 신속히 육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있다.》라고 폭로하였다.

미제의 피뢰군확장계획에 따라 남조선 피뢰들은 1948년 11월에 《국군조직법》을 조작하고 보병, 포병, 기병, 공병, 통신, 기갑, 병참, 경리, 감찰, 군의, 공군 등 여러 병종과 군종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1949년 5월에는 모든 려단들을 일제히 사단으로 개편하고 6월에는 수도경비사령부와 8

사단사령부를 신설하였다. 결과 육군무력은 모두 8개 사단에 22개 련대로 확장되었다.

미제는 피뢰군의 육군무력과 함께 공군과 해군무력도 급속히 증강하였다.

1948년 5월 남조선항공건설협회를 모체로 조작되었던 피뢰공군은 1950년 6월에 김포, 여의도, 수원, 군산, 대구, 광주, 제주 등지에 각각 기지를 두고 약 100여명의 조종사를 포함하여 외국(주로는 일본) 비행대에 3년이상 복무한자 400명을 주력으로 하는 1 890여명의 병력을 가지게 되었다.

미제는 《해안경비대》를 해군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79척의 각종 함선을 넘겨주었으며 인천, 진해, 부산, 목포, 러수 등에 해군기지를 꾸리고 1949년 5월에는 해안상륙을 위한 특전대의 임무를 지닌 해병대까지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피뢰군의 각 군종병력수는 육군 8개 사단에 6만 7 416명, 기타 지원부대 2만 7 558명 계 9만 4 974명이었으며 해군 7 715명, 공군 1 899명, 해병대 1 166명으로서 총계 10만 5 754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밖에 피뢰전투경찰 5만여명이 있었다.

미제는 이 방대한 피뢰군무력이면 압록강, 두만강까지 능히 밀고 올라갈수 있으리라고 망상하였다.

맥아더사령부의 군사정보관계의 전문가들은 남조선피뢰군을 《아시아제일의 군대》라고 하면서 《북조선군대쯤은 문제없이 섬멸할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였으며 《미경제원조처》 존슨은 1950년 5월에 미국회하원제출위원회에서 《미국식무기로 무장하였으며 서울의 미군사절단의 지도밑에 미국장교들에 의하여 훈련받은 10만여명의 남

조선군이 모든 준비를 끝마치었으며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수 있다.》고 떠벌이었다.

미국호전광들의 이 망발은 미제가 조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남조선피뢰군을 직접 조직하고 훈련시켰다는것을 보여주는 론박할수 없는 증거로 된다.

한편 미제는 피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고 미국제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군사고문들을 피뢰군의 각 사단에는 물론 련대, 대대에까지 10여명씩 파견하여 피뢰군에 대한 훈련과 작전지휘를 비롯한 모든 통수권을 틀어쥐게 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부터 피뢰군부대들에서는 미군사고문들의 지휘밑에 6개월간에 거쳐 부대훈련으로부터 련대, 사단훈련에 이르는 전술훈련이 진행되었으며 피뢰군장교들을 미국에 류학시키거나 일본의 규슈와 야마구찌현에 주둔하고있던 미24사단에 보내어 미국식훈련을 주었다.

이와 함께 미제는 피뢰군의 무장장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9년에 리승만도당에게 약 1억 1 000만US\$의 《군사원조》를 주었는데 그가운데는 10만 5 000정 이상의 소총 및 카빙총, 2 000정 이상의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5 000만발이상의 탄약 그리고 박격포, 곡사포 및 기타 포들과 이에 필요한 포탄들, 5 000대의 화물자동차, 5만개의 지뢰 및 폭발물, 79척의 함정과 20대의 비행기가 들어있었다. 이밖에 수많은 각종 구경의 포와 통신기재들, 8 500만US\$분의 견인차와 기타 군수기재들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에서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피뢰군을 조작하고 미국식으로 무장시켜 훈련시킴으로써 현지침략무력을 마련해놓았다.

조선전쟁에 동원할 침략무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제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후 대폭 줄이었던 미제침략군무력을 증강하였다.

미제는 미제침략무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먼저 군사비를 늘였다.

미국정부의 군사비예산은 1947-1948회계년도에 117억US\$였는데 1948-1949년도에는 159억 7 800만US\$로 늘어났다.

조선전쟁이 박두한 1950년에 들어와 군사비는 더욱 늘어났다. 1949-1950년도군사비예산은 170억US\$로서 1947-1948년도의 145% 증가하였으며 미국정부의 군사비지출은 인구 1인당 1938-1939회계년도에 약 8US\$던것이 1950년에는 147US\$로 대폭 늘어났다. 이 방대한 군사비지출에 의하여 미제침략군무력은 크게 증강되었다.

육군은 1949년에 근 100만명으로 다시 확대되었고 (1938년의 5.4배), 해군은 1947년에 380만t(1939년의 3.8배)의 함선과 50만명의 병력(1939년에는 10만 7 700여명)을 가지게 되었다.

1947년 《트루먼주의》가 선포된 후부터 미제는 《미군은 공세로써 결전하라》는 침략적인 구호를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공군무력도 1948년 3월에는 비행기 2만 540여대에 40만 1 000여명의 병력(1937년에는 비행기 100대에 1만 8 6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팽창한 미제침략군무력의 대부분은 극동지역에 파견되어 전쟁동원준비를 갖추었다.

조선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방대한 남조선피뢰군무력을 직접 조작하고 침략군무력을 급격히 증강한 사실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전쟁준비를 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제가 조선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은 다음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리 전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미제는 1949년 봄부터 《북벌》을 당면과

제로 내세우고 전쟁계획작성에 달라붙었다.

전쟁계획작성에는 맥아더사령부의 고위급참모들과 남조선강점 미군사고문단 단장 윌리엄 로버트, 맥아더사령부 정보부에 소속된 옛 일본군장성들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정일권, 김석원 등 피뢰군우두머리들이 망라되었다.

이 범죄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전쟁도발계획은 완성되자 곧 남조선피뢰군부에 넘겨졌으며 그것은 1945년에 미군군사지도 인쇄소에서 발행한 조선지도(축적1 000 000:1)우에 그려진것으로서 지도우에 표기된 선과 화살표, 점선 및 기타의 표식들은 피뢰북해공군의 《북벌》군사행동계획을 표시한것이였다.

《북벌》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미제는 피뢰군부대들을 배치변경하고 그 기본주력을 38° 선연선에 집중배치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무장침습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전쟁도발을 위한 1949년의 무장침습은 38° 선의 동부, 중부, 서부의 모든 연선에서 무려 2 617회에 걸쳐 감행되였다.

38° 선에서의 피뢰군의 모든 전쟁도발책동은 미합동참모본부와 맥아더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에 의하여 직접 계획되고 조직되었으며 피뢰군의 련대, 대대본부에까지 들어앉은 미제침략군 고문들에 의하여 지휘집행되였다.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은 38° 선일대에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무력을 투입하였으나 그때마다 우리 경비대의 자위적인 반격에 의하여 완전히 격멸되였다.

38° 선지대에서의 전쟁도발책동을 직접 조직지휘한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까지도 이 전쟁계획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리승만군대의 전투무능력을 단정》하고 《〈국군〉이 도저히 전쟁단위로 될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국방성에 보고하였다.

로버트의 보고를 받은 미제우두머리들은 피뢰군만 가지고 북반부를 점령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개탄하였으며 본래의 전쟁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였다.

1949년말에 수정된 미제의 전쟁도발계획은 조선전쟁을 1950년 여름경, 7월이전으로 미루며 이 시간을 리용하여 남조선에서의 전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한편 남조선피뢰군만으로 《북벌》을 감행하려던 1949년의 계획을 변경하여 미군을 전면투입하여 조선전쟁을 감행하는것이였다.

이것은 피뢰군이 전쟁을 도발한 첫 순간부터 패배하는 경우를 타산한것이였으며 미군의 전쟁개입을 미국무성의 외교적모략으로 뒤받침하는것이였다.

이 계획은 남조선피뢰군이 전쟁을 도발한 즉시 미국무성이 《북조선군이 무장공격》을 하였다고 날조하여 유엔에 《제소》하고 《유엔군》을 조작함으로써 유엔의 간판밑에 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합법화》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였다.

미제는 피뢰군이 패전하여 전쟁국면이 불리하게 되면 그것을 《북조선의 공격》이라고 떠들면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의 구실로 삼으려고 계획하였던것이다.

수정된 새 계획에서 미제는 남조선피뢰들에게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모략책동을 강화할것을 지시하였으며 동시에 저들의 정보기관들을 발동하여 직접 공화국에 대한 간첩과피암해책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첩보공작계획은 먼저 평양을 비롯한 20여개의 주요도시들에 간첩과피암해분자들을 침투시켜 군사비밀을 탐지하며 북반부의 모든 생산, 운수시설들과 수단들, 지형지물에 이르기까지의 대상들을 정찰할것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또한 북반부의 주요기관들과 철도의 파괴, 방화, 간부들에 대한 암살 등 후방교란과 피뢰군침입시의

길안내자의 육성까지 예견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은 다음으로 일본을 조선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공격기지로 전변시킨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1949년부터 일본을 아시아침략 특히는 조선침략의 후방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극동병기공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배상대상으로 지정되었던 800여개의 대군수공장들이 미군의 관리밑에서 무기생산을 본격화하였으며 1950년초에는 기계공장, 화학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이 맥아더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군수공장으로 전환되고 군수품을 생산하였다.

동일본중공업, 후지자동차, 고마쓰제작소 등은 군용자동차나 탱크의 수리 및 조립공장으로 전변되고 일본제철무사시제작소는 농기구공장에서부터 상륙용함정을 만드는 조선소로 바뀌었으며 일본최대의 염료공장인 미이게염료공장은 TNT원료와 동가스원료공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50년 4월부터 일본의 모든 조선소들에서 미제의 탱크상륙함선을 병력수송선으로 개조하여 70여척을 개조하였으며 1949년 5월에는 혈청을 저축하기 위한 수혈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내왔다. 미제는 195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을 조선전쟁에 필요한 공격기지, 출발진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아시아최대의 공군기지로서의 오키나와 군사기지건설이 1949년 10월부터 시작되어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되었으며 후카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는 일본의 전국에 최대형의 폭격기가 리착륙할수 있는 비행장들이 수많은 건설되었다.

비행장건설과 함께 해군기지와 륙군병영과 같은 군사시설건설도 이따즈께, 사세보를 기본으로 하여 오키나와, 고베, 요코스카, 아오모리, 아끼다, 삿쵸로 등 일본의 모든 중요전략적지점들에서 동시에 진행

되었다.

일본에서의 군사기지건설비용은 미국정부가 추가한 전체 해외파견륙군유지비 40억 2 000만US\$의 2/5에 해당한것이였다.

뿐만아니라미제는 조선전쟁도발전야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일본에 집결시키고 조선전쟁에 참전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미제는 《B-26》, 《B-29》 등 대형폭격기들과 추격기, 수송기편대들을 극동공군에 파견하였으며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직전인 1950년 6월에는 규슈에 집결시켰다. 그밖에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들도 제7함대에 보충하였으며 미극동군사령부아래의 보병, 탱크병, 포병 및 수송부대의 장비들도 더욱 보충강화하였다.

조선전쟁도발전야에 미제가 저들의 륙해공군무력을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집중배치해놓은것은 이미 짜놓은 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피뢰군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지체없이 조선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조치로서 그것은 곧 전쟁도발자로서의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로 된다.

이와 같이 미제가 남조선피뢰군을 직접 조작하고 일본을 조선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미리 작성해놓은 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피뢰군으로 하여금 전쟁도화선에 불을 지르게 한 후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조선전선에 미륙해공군무력을 전면투입한 사실은 미제야말로 조선전쟁도발의 주범이고 장본인이며 도발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한 침략자라는것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하며 반미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미제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제와 총결산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